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끓주리다 숨진 탈북 모자(母子), 누구 책임인가

74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끓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 끓주리다 숨진 탈북 모자(母子)'라는 기사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모자의 시신은 서울 관악구 어느 아파트 관리인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수도 요금 미납으로 단수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관리인이 찾아가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모자가 죽어 있었다.

숨진 탈북민 한모(42세)씨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탈북해서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2009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중국 동포(조선족)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았다. 남편과 함께 중국에 갔다가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서 다시 한국에 왔다.

탈북민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2개월 교육을 받고 나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는다. 이혼 전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사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서도 빠졌다. 아이를 돌본다고, 나중에는 아이가 병이 있다는 이유로 외부와의 교류도 끊겼다.

경찰과 탈북민 등에 따르면 모자가 살던 13평 아파트는 보증금 547만원, 월세 9만 원짜리 임대아파트였다. 아이 양육비 월 10만원이 수입의 전부였다. 월세를 수개월 못 내고 아파트 관리비도 수개월 밀렸다. 집에서 발견된 통장 잔고는 0원이고, 5월 중순 3858원을 모두 인출한 것이 마지막 거래였다. 모자의 사망 추정 시점은 그로부터 약 2주 뒤였다. 정확한 사인(死因)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경찰은 자살이나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끓주림을 피해서 온갖 어려움과 천신만고(千辛萬苦)를 겪고 찾아온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굶어 죽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끓주림으로 죽어간 모자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북한 이탈주민, 우리 형제자매다. 나는 고개 숙여 힘들고 고단한 삶을 마감한 모자의 명복을 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쌀 한 톨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탈북민이나 홀로 사는 독거(獨居) 노인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통일부 관계자는 좀 더 정진 차려야 한다. 통일정책의 입안이나 집행 등 거대 정책은 청와대나 국회 등에서 결정한다. 통일부는 결정된 통일정책을 대상과 환경을 잘 가리고 판단하여 자상하게 집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건설적으로 대강대강 시행해서는 많은 허점과 불행이 발생한다.

통일부 산하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있고 탈북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관리하던 탈북민이 해외로 나갔는지, 생활고에 시달리는지,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앉아 있다가 시간이 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급여만 받아먹고 있으니, 한심하다.

유아무야 지나갈 일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할 명백한 직무유기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통일부 담당부서, 하나원 등 관련부서를 통합하여 탈북민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 업무를 기획·조정·교육·관리할 통합 특별행정부서의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언젠가 내가 칼럼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을 복속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우리 동포 탈북민 3만 명은 우리가 우대해야 할 통일의 선봉대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국가 사회가 포용하고 통합하고 함께 행복해야 할 소중한 형제자매다.

통일부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도 '이웃은 타인'이 아니라, '이웃도 우리 형제자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녀의 비극은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현기증 나는 고도기술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의 비정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우리들은 자기 코가 석자라는 강박증과 과도한 경쟁의식, 나몰라라 하는 무관심으로 철갑(鐵甲)을 입은 듯이 무장하고 있다.

이익이 조금만 없거나 자기에게 불리하면 바로 무관심과 이기심, 배신이 판치는 황금 제일의 살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이요, 비정한 비극이다.

社說

'황금 바둑판' 신중 기해야

신안군이 200kg에 가까운 순금을 매입해 이른바 황금 바둑판을 만들기로 해 논란이다.

군은 100억원을 훌쩍 웃도는 돈은 3년에 걸쳐 마련한 기금으로 충당하고 바둑의 고향이라는 점을 알리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어려운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혈세로 무리한 황금 마케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신안군은 최근 '황금 바둑판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황금 바둑판 만들기 위한 순금(순도 99%) 매입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것이

2022년 12월말까지 순금 180kg 매입하려면 이날 금 시세 기준 110억여원의 기금이 필요하다.

군은 가로 42cm, 세로 45cm, 두께 5cm의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 해마다 63kg씩 3년간 총 180kg의 순금을 사들일 계획이다.

입법 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께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금 바둑판은 앞으로 신안군에서 개최될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등 각종 바둑대회에서 전시될 예정이고, 평상시에는 수장고에 보관한다.

신안군의 이같은 계획은 이세돌을 배출한 신안군을 바둑의 고향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투입해 100여대 황금 바둑판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훌쩍 넘는 순금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 점을 고려해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기술인 신고 182 ▲인광 야고골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생각에서 머문 안전 손끝으로 실천하자

조급하면 재해오고 방심하면 사고 온다. 생각에서 머문 안전 손끝으로 실천하자. 말로 하는 안전보다 실천하는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안전사고에 관한 하인리히 법칙은 일정기간에 여러 차례 경고성 전조증 많은 징조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무심코 지나치는 등 방관을 하며 안전을 등한시 하여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이다.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이 있었고 역시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는 사람이 300명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안전이란 많은 수백 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고 본인이 실천하면 안전 제로가 될 수 있다. 남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모든 일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가 우선이다.

재해현장 및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며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천하자.

둘째는 개인보호 장구 착용이다. 개인보호구는 본인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이며 형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세 번째는 현장인 모두를 위한 정기 안전교육이다.

재해의 원인 위험성 등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사의 안전의식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미흡 등 안전 의식이 부족한 현실

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면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이지만 나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다는 자긍심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또한 행복을 빼앗아 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안전에 대해 끝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가족, 우리가웃, 우리나라 모두를 지키는 안전을 행동으로 실천하자.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행정지원담당

문화융성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